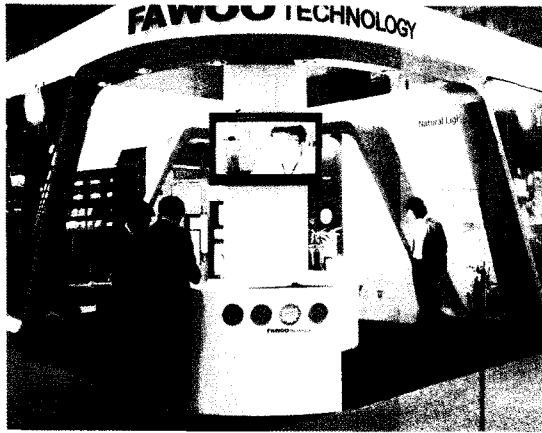


‘2011 국제광산업전시회’ 순항

www.photonickorea.org

2011. 10.4 TUE ~ 6 THU





오는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려 광융합분야 국내외 기업 200곳 참석

국내외 광산업 분야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'2011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기술컨퍼런스'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.

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과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200개 업체가 참여해 광산업 관련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.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 뿐만 아니라 IT를 비롯해 조선, 농업, 건설 등 광융합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대형 전시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광산업은 산업전반에 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종과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

현재 싱가포르의 웨이브랜스케크와 일본의 슈미타옴터컬글래스 등 광통신을 비롯해 광센서, 광섬유, LED, 신재생에너지 기업 100여곳이 전시회 참가를 신청했다.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해외판로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 LED 수출컨소시엄관을 공동 구성키로 했으며 별도의 중국관을 구축해 중국기업 10곳도 유치했다.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초청지원제도도 운영된다.

광관련 업체를 비롯해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초청하고 싶은 해외바이어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신청하면 20명 한도내에서 1인당 70만원(\$600)의 경비를 지원한다. 국내에서는 LG이노텍을 비롯해 아이엠, 에이팩, 태종씨앤아이, 태평양 기술 등이 참가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LED와 융복합 제품을 선보인다. 전시회와 함께 '광산업 시장동향 및 마케팅 동향'을 다루는 국제광기술컨퍼런스도 열린다.

이와 함께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. 한국광산업진흥회 조규중 부회장은 " '광세기의 창조'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된 광주에서 한국 광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업계간 활발한 정보교환 및 홍보마케팅의 장이 될 것"이라며 "구매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해외바이어가 다수 참여하는 만큼 활발한 상담과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제광산업전시회는 올해도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유망전시회로 선정됐다.